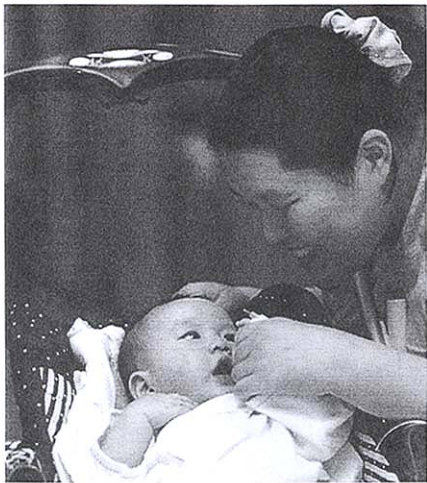


한국심장재단, 할로씨 4징 환아에 새생명



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되는 한국심장재단의 진료비 지원으로 2만번째 새 생명이 탄생했다.

2만번째 새생명 탄생의 주인공은 서울대병원에서 '할로씨 4징' 수술을 받은 박지원군(사진, 2003년 10월 2일생·남).

지난 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원군은 같은 달 11일 소아 흉부외과 김웅진 교수의 정돈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빠른 회복을 보여 오늘(22일) 건강한 영아로 퇴원했다.